

발행인	안병만
편집인	김태현
집필인	김진
발행처	외대신문사 29962-7128, 961-4151
대외부	961-4152, 961-4183(FAX 전용)
발행처	외대신문사 29962-7128, 961-4151
대외부	961-4152, 961-4183(FAX 전용)
발행처	외대신문사 29962-7128, 961-4151
대외부	961-4152, 961-4183(FAX 전용)
발행처	외대신문사 29962-7128, 961-4151
대외부	961-4152, 961-4183(FAX 전용)

자연대, 공대 분리 ... 내년 시행 예정

사회대 경상대로 명칭 변경 동구어대 학부제 도입 고려 중

영인캠퍼스 자연과학대학 학과중 전자공학과와 제어계측공학과가 통합돼 신인공학과, 정보통신학과, 컴퓨터공학과와 함께 정보산업공과대학으로 분리되고 사회대가 경상대로 명칭이 변경되는 등 학과통합과 단대분리를 통한 단대의 기구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조정처는 이를 승인받기 위해 교육부에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영인캠퍼스 교무처장 장실(노여부) 교수는 "이 사안은 교육부의 대학지침을 토대로 인해 별 어려움 없이 해결될 것"이라며 학과통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단대분리추진에 대해 기획조정처 과장은, "취임시 공과이 유리하며, 관련학과 교수들이 외부활동 및 연구비 지원을 받기에 유리하고 국가정책이 공과대학에 비중을 두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교에서는 국가의 정보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하여 관련학과를 특화발전 시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연대 학생회장 이재구(화학 30)은 "공대 분리를 준비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공대학생회를 건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연과학대학의 화과 통계학과 단대분리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으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총학생회장 정석민(통학·마인어 4)군은 "현재 공대가 아직 분리돼 있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당국은 올해 등록금을 이학·공과 계열로 차등 인상해 책정했다"라며 대학당국을 비난했다.

한편, 사회대가 경상대로 명칭이 변경되는 것과 관련, 사회대 학자주와 교수위원회위원장 배병성(경영정보 4)군은 "현재 사회대 계열인 경제학과/경영정보학과/무역학과는 사회과학과의 성격이 맞지 않

는다"라며 "또한 사회대라는 명칭은 제2캠퍼스에 많이 취임시 추천장이 오지 않는 등 피해가 많다"라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3년동안 지속돼온 동구어대 학생들의 단대분리 요구는 대학당국의 불가침장으로 아직 불분명한 상태다.

동구어대 학생회장 이주남(체코어 4)군은 "학문의 발전이나 학생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해 단대분리는 불가피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무처 관계자는 "현재 동구어권의 현실을 비추어 볼때 단대분리를 시행할수록 학사상의 문제가 뒤따른다"라며 "지금 당장은 불가침하고 계열이나 학부제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오는 11일(화) 동·서양대학과 학장주재 학과장 회의에서 지역과 도입과 제반 학사 문제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박근영 기자)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의장으로 당선된 정태홍군은 "올해를 변화와 혁신의 해로 만들겠다"라며 당선 소감을 밝혔다.

한총련 대의원대회에서 의장으로 당선된 정태홍군

서울 총학, 6일 전학대회 열어

학생회칙 개정 논의

학생회 직접민주주의 강화의 장인 전학대대표자회의(전학대회)가 본교에서 최초로 오는 6일(목) 열린다. 대학인 104호에서 열리는 이번 제1차 전학대대표자회의는 총학생회장부터 각 학년대표까지 총 2백10명이 의결권을 갖고 참석하게 된다.

이번 총학생회는 전학대회가 열리는 전에 총대의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며 총대의원회 회장도 선출할 예정이다. 총대의원회 회원은 각과 학년대표로 이뤄지며 1백인 이상의 과는 1명을 더 둘 수 있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이번 전학대회의 의의를 △학생회칙을 이용한 대학당국의 학생회 강제 대응수단 △학생회와 학생들의 상호 의사전달 통로 복구 등으로 두고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 특별히 가지는

의의와 목표로서 △학생회 회칙 개정 △과·단대·총학생회로 연결되는 학생회 체계 강화 △보다 적극적인 학생들의 의견 반영 △학생회의 문제의식을 학생들에게 연결 △학생회 사업으로 안착화 계기 등을 꼽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논의할 안건은 △회칙개정 △95년 학생회 총선보고와 사업계획 확정 △총학생회 결산 보고 △동부 집행상황 보고 이후 공대위 활동계획 등이 다.

이외에도 대표자 20인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특별사안으로 상정이 가능하며, 오는 4월(금)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전학대회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장 하용갑(정책·행정 4)군은 "직접민주주의 강화

를 위해 전학대회가 건설된다"라며 "전학대회에서 하나가 된 학생들의 힘을 바탕으로 보다 학우들과 함께하는 학생회가 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학생처의 한 관계자는 "학생회칙은 일반학생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이루어져야 함에도 전학대회라는 인위적 기구를 통해 종속으로 처리하려는데 의구심이 든다"고 밝히면서 "특히 전체교수회의, 단대교수회의, 교무위원회의 고위급인 학칙개정회의 발의 등을 학생회에서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존의 학생회칙 제5조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라는 조항과 회칙개정안은 총장이 공식적으로 공포하도록 되어 있다. (김재경 기자)

을 한해 한총련 사업 확정

한총련 의장에 정태홍군 당선

지난 3월 31일(금)부터 3일간 단국대 천안캠퍼스 학생극장에서는 제 3기 한총련 대의원대회(한총련) 대의원 대회가 열렸다. 한총련 대의원대회에는 매년 한번 전국 모든 대학 총·부학생회장과 각 단대장들까지 참가해 1년의 한총련 사업안을 확정하게 된다. 이번 대회에는 9백20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우(아주대 총학생회장)군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한총련 의장과 조국통일위원회의 위원장, 학원자유화추진위원회의 위원장 등 중앙위원회의 특별기구의 선출을 비롯, 올 한해 한총련 사업기조의 방향, 구제책 사업 내용 등에 대한 안을 확정했다.

사상 처음으로 학생으로 차려진 한총련 의장 선출에서 임시의장을 맡고 있는 정태홍(고려대 총학생회장)군이 참석 대위원 중 9백2표를 얻어 2백37표를 얻은 김성훈(연세대 총학생회장) 중앙위원을 제치고 제 3기 한총련 의

장으로 당선됐다. 또 학원자유화추진 위원장은 단국대 총학생회장, 조국통일위원회의는 이원구(한양대 총학생회장)가 당선됐다.

한편 사업기조와 관련, "우리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중심을 정하여 내자"는 기조와 함께 △주체 혁신, △조직원 혁신, △학생들의 사업참여 방식 혁신, △한총련 통일단결이라는 4대 혁신과제를 제시했다.

한총련 의장으로 당선된 정태홍군은 "민중과 학생들의 희망인 변화와 혁신을 주축적으로 이뤄내겠다"며 "민중사적 대 전환기인 95년을 힘있게 치환해"고 결의를 밝혔다. 또 속사로 참성한 민주주의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의 천령새 삼정의왕은 "민주노총 건설과 WTO 이행특별법의 시행 등에 한총련이 앞장서야 한다"며 95년을 역사적인 해로 만들기 위해 한총련의 입무가 막중한을 강조했다. (사취부)



역사의 심판

▲88년 엘리트리더들이 '한국 영공위협자' 발진소 3,4호기를 미국의 캠퍼스 천안지나아링사기 수주하는 과정에서 전두환씨 형제가 깊숙히 개입해 있다'고 보도했다.

그후 한국 아랍과 언론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한반도 해외에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해보지 않는 캠퍼스천안지나아링사기 어떻게 5공 최대규모의 원자력공사를 따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크게 제기했다. 또한 이일을 계기로 5공 비리척결 움직임이 가속화 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이 된 그때의 아랍인사들과 언론들은 북한정권수호지원은 한국에서 돈을 내니까 무조건 한국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을 한국형 원자로를 채택하지 않았을 경우 서방 자유주의국가들의 응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강경발언도 서슴치 않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형 원자로가 안전성 검증은完毕 하지 한국에서조차 그 형태가 없다는 것이다. 미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한 뉴욕타임즈는 "한국정권은 지나치게 한국형 원자로를 미국의 설계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북-미간의 원자로 강요하에 일을 망치고 있다"며 "그 한국형이라는 것도 사실은 미국의 설계에 따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정정이라는 걸작에서 배려의교를 펼치는 북한 또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한국형 원자로에 대해 '현재 해이 셀지도 모르는데, 언제 공사가 멈춰질지도 모르는 트로이의 목마'라는 북한의 외교부에 남한 정부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지난해 북미 한계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현재 핵정책 주장에도 남한은 북한의 과거에 대한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며 특별사찰을 끝까지 주장했고, 이로 인해 전쟁소동이 벌어질 정도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바 있다.

▲이제 겨우 3대개회기간의 타결로 50년만에 찾아온 화해의 분위기가 긴장권의 지대로 많은 한총련 원자로로 인해 또다시 긴장조로로 이어져서 안일할 것이다. 북한 정권수호를 무담할 것이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중론에서 벗어나고 한강에서 화해가 하는 일을 계속해선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선거 이전에는 한국정부가 한국형 원자로무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논평의 내용처럼, 또 하나의 긴장해로써서 감성정권이 이를 이용하고 있다면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수미)

자면안내

3면: 전학대회 해설기사

4면: 해방 50년 역사 속의 우리

3. 학교교육의 미국 총학생과 수업개방에 따르는 문제점

5면: 사법계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혁방안

이와 더불어 올해 특별히 가지는

이와 더불어 올해 특별히 가지는

이와 더불어 올해 특별히 가지는

이와 더불어 올해 특별히 가지는

외대학보 창간 40주년

뿌리깊은 나무가 있었습니다

'불독' 외대 그곳엔 언제나
외대학보가 있습니다.

민족자주언론
외대학보

4490

□ 전학대회 건설의 의의와 한계점

개최 자체 큰 의의...명확한 위상 정립 필요

총대의원회 위상 축소·학생총회 한계 극복 노력
실질적 집행력 보장 의문시 돼

이번 전학대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기존의 총대의원회가 소집돼, 예산의 과정을 거쳐 다시 전학대회가 열리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한편 그 자체로 직접 민주주의의 확대와 학생회 사업의 새로운 방향 모색이라는 성격이 있다.

매년 학기초에 열리는 정기 학생총회는 그 자체가 학생회 최고 의결기구임에도 그 나름대로의 위상을 찾기 못했다. 총학생회와 방학 실행과 목표 공유가 중심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존 학생총회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전학대회의 기초 제기배경이다.

오는 6일(목) 논의되는 예산안안은 대략 37가지다. 학생회 회칙 개정·총노선 확립·공대회의 이후 활동방향 등이다.

학생회 회칙 개정안에는 현재 의대입학에 수혜를 받는 회칙이 1989년에 제정된 것으로써 지금

상황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고, 유무명실하나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또한 여기에 대학당국이 '학생회장 자격조건'을 들고 나왔던 일이 계기가 됐다. 가정이 가능하다. 이는 작년부터 몇몇 단체·과 학생회와 학생회장 자격조건으로 인정 및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건과 이후 학생회장 자격조건을 강화하겠다는 대학당국의 공문에서도 드러난다.

총노선 부분은 각급 단위 학생회에서의 이후 1년 활동계획과 원칙을 수록해 전제적인 틀을 만든 것으로 △학생회 강화를 중심으로 △2학기 등 두 대 구획과 의대발전운동 확대 △의대 지원금 고지 사업 등의 내용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최초로 열리는 이번 전학대회에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한 학생회와 보장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그 첫째로 꼽히는 것이 바로 집행력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지라는 문제다. 실질적인 집행력 담보를 위해 열리는 전학대회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일반 학생'인 과 학생대표들이다. 이와 비교해 학생회 자체 등 평가에서 지지받았을 학생회 사업에 열심이 미려한 과학생들의 회의체인 확대운영위원회조차 중앙의 내용을 강력하게 실천하지 못했던 상황이 이 주중에 실행력을 뒷받침해 준다.

둘째로는 운영의 대중성 문제이다. '일반 학생'인 과 학생대표들이 참석을 해서 인간에 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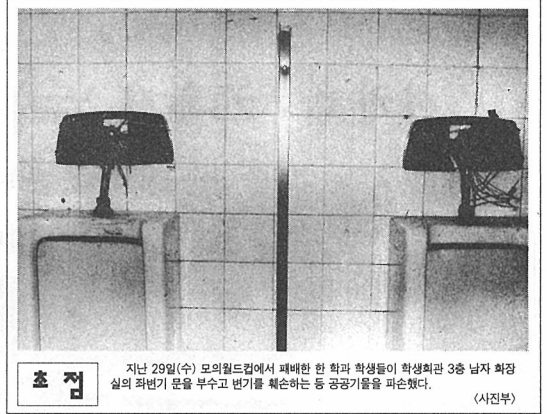
실질적인 토론이 이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안전에 대한 사전 토의와 교양이 필요하다. 또한 과 학생대표들의 참석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대표들이 자발적으로 주변의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는 과정도 필수적이다. 이외에도 학생 전체를 상대로 한 전학대회 자체의 신선도 무시할 수 없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임에도 학생회 일꾼들이 바쁘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셋째로는 전학대회의 위상 자체의 문제이다. 이번 전학대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학생회 회칙 개정안에는 예산에 총대의원회가 있었던 시절의 몇몇 회칙이 삭제되거나 수정돼 있다. 이중에서도 총대의원회 위상 자체에 대한 구

장중 상당수의 부분들이 삭제될 예정이다. 한 예를 들어 1930·10·11항의 운영위원 출석요구권과 집행부 각 부서 부장의 출석요구권의 삭제가 그것이다. 또한 전학대회의 자체적인 의결권출현을 폐지하고 총학생회장이 의장을 겸임하도록 돼 있는 규정도 그렇다. 예산의 총대의원회의 위상이 대폭 축소돼 전학대회로 부활되는 것이다. '독자적 기구'의 성격보다는 '수동적 기구'의 성격이 짙다.

한편 총학생회는 이번 전학대회의 의의를 부각시키고자 '개회'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다. 준비가 미흡한 면도 있고 경험도 없지만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인적화를 꾀할 계획으로 있다.

올해 그 첫발을 내딛는 전학대회는 학생회 체제의 강화와 대중성 확보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의는 바로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이다. (대학부)



초점

지난 29일(수) 모의월드컵에서 패배한 한 학과 학생들이 학생회장 3층 남자 화장실의 적벽가 문을 부수고 번기를 훼손하는 등 공공기물을 파손했다.

(사진부)

용인, 지역학 도입 본격 논의

전체 학과장회의, 구체적 방법 논의

지난 3월 24(금) 교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지역학 도입과 실용영역에 강의에 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이 지난 3월 28일(월) 95학년도 1학기 용인캠퍼스 전체 학과장 회의에서 논의됐다. 이로써 지역학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이 날 회의에서 보고된 주요 안으로는 △이론계열학과 지역학 교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실용영역에 강의와 방한 △유사학과 통합 문제 △각 학과장실 담당자 설치 계획 등이다. 보고된 논의사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론계열 지역학 교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화된 사항으로는 △용인 캠퍼스는 계열기초 교과목을 제외한 16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학점은 교과목당 2학점으로 한다. △교과목 명칭은 각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구체화시킨다. △교과목 개설은 3학년 과정부터의 시범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별도 가능하다. △각 학과별로 현재 편성돼 있는 전공교과목의 총학점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지역학을 필수로 이수하더라도 전체 전공 이수 학점은 현행과 같이 적용한다 등이다.

실용영역 강화를 위한 주요 내용은 △'실용영역'이라는 전담기구를 독립부서로 신설 △실용영역에 구사 능력을 겸임의 필수 조건화(졸업시험제도 대신 토익이나 토를 성적 취득 방안도 연구) △학교 차원에서의 '영어 토론 대회' 또는 '영어 말하기 대회' 등을 신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 외국대학 연수기회 부여 △통역 협회·타원인 AFKN 등 외부 단체와 협력하여 유망인원 연계 등이다.

또한 지난 3월 28일(목) 교무위원회의 '학부도입'에 따른 학과 통합 학부 추진 협조'를 내용으로 하는 공문이 발송되고 교육부가 유사학과 통합이 이루어진 대학에 한해 별도 지원하기로 한 방침이 사실됨에 따라 본교도 각 단과대학별로 이에 관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기로 했다.

교육부의 지침에 따르면 또한 2개 이상의 유사학과를 통합한 경우는 학부를 두고 그 학부당에 2개 이상의 전공분야를 두도록 되어 있다. 학과장들이 해당학과 학생들의 개인별 재능을 파악하기 위한 담당자가 각 학과장실에 1

학기 중 설치될 예정이다. 이 단말기에는 △학생 개인별 인적 사항 △수강 신청 내용 △취득 학업 성적 현황 △장학금 수혜 내역 △휴·복학 등 학적 사항 △등록금 납입 여부 등의 내용이 들어간다. 특히 이 단말기는 올해 수강신청과정에 있어 졸업생의 사별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도 설치되는 것이다.

이 밖에도 강의 시간 및 담당교수 변경으로 인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것과 관련, 교수처에서는 수강 신청변경기간 이후부터 수업시간 변경을 자체로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1학기부터 전면 실시하기로 한 강의평가제는 미비한 교수업적 평가제도가 실시되는 시기에 실시될 예정이며 이번 학기는 이전 방식인 희망학과에 한하여 실시된다.

지난 27일(월) 각 단과대학 학과·교양부 행정 사무실(교양관·신강의)에 학사의 송신선로 및 기계 장치 설치와 함께 학사 중에 각 건물별 대단위 강의실에 1대의 비디오도 설치될 예정이다. (학력연구자)

제2 교수연구동, 97년 준공 예정
학내 교수 연구 공간 다소 해결

지난 3월 28일(월) 서울 캠퍼스에 건설될 예정인 제2다목적교수연구동 기공식이 열렸다.

현 테니스장 부지에 들어설 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지난 94년 세워진 교수연구동과 함께 본교의 교수 연구시설 확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건설부의 한 관계자는 "본 연구동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는 교내 최초의 건물"이라며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돕기 위해 교수실당,

귀빈식당, 세미나 실 및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선다"라고 밝혔다. 97년 2월 28일 준공 예정인 제2다목적 교수연구동은 건축면적 4백 30평, 건축연면적 3천 5백 55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문과학관에 있는 교수실마다 이곳으로 이동하면 현재의 학생실당의 공간이 넓어지고, 도서관 5층에 자리하고 있는 교수연구실도 함께 이용을 해 공간 재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불가리아 대통령 본교 방문
본교 대학원에서 명예정치학 박사 학위 수여

불가리아 대통령 젤루 젤레프에 대한 명예정치학 박사 학위수여식이 오는 4일(화) 오후 3시(20분)에 대강당에서 열린다. 총장, 대학원장 및 각 교수들이 참석하며 불가리아 정부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예정이며 행사 이후 본교 방문기념 식수도 있을 예정이다.

젤루 젤레프 불가리아 대통령은 사회학자 및 연구원으로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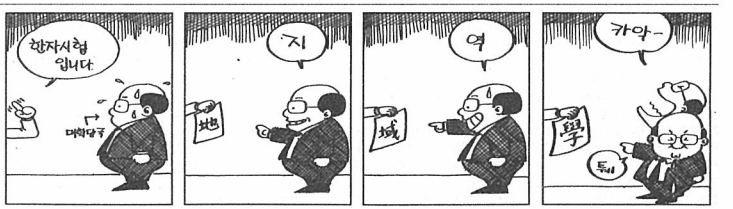
어문계열 지역학 교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화된 사항으로는 △용인 캠퍼스는 계열기초 교과목을 제외한 16과목을 필수로 이수한다. △학점은 교과목당 2학점으로 한다. △교과목 명칭은 각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구체화시킨다. △교과목 개설은 3학년 과정부터의 시범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별도 가능하다. △각 학과별로 현재 편성돼 있는 전공교과목의 총학점 범위 내에서 운영한다. △지역학을 필수로 이수하더라도 전체 전공 이수 학점은 현행과 같이 적용한다 등이다.

겨우 몇 학점 뒤를 위해 한 학기 다니는 것도 아닐까. 재정적인 부담은 주지않자"라는 학생들의 주장에 서울캠퍼스 교무처장 정영문(교양부)교수는 "학생들이 최소한 20~30학점은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학생들에게 지급된 학자금 보조비 액수는 30만원이다. 학생들은 약 70만원으로 재정적인 부담이 높아졌다. (학력연구자)



(57) (김효원)



살맛나는 외대

애국외대 제29대 총학생회

전학대회

변화된 학생회에 걸맞는 학생회칙을 위해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 외대인을 위하여 개정되어야 합니다. 학생총회의 위임기구이자 학생회칙의 대의기관인 전학대회는 학생회 사업의 기본방향과 주요 정책결정 사항을 심의 의결하여 학생회의 민주적,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외대 토론 문화의 새로운 장을 마련합니다.

언 제 : 4월6일(목)
어디서 : 소강당(대학원내)



29개과 29대 총학생회
교육개방의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애국외대의 자랑스런 모습
해방 50주년 진정한 통일 1세대로 달려나갈 7천 학우들의
소망·아름다운 출발이 있습니다.
달라진 모습으로 학우들에게 다가 갑니다.

언 제 : 4월11일(화)
어디서 : 대운동장

학술 강연회

'21세기 한국의 선택-한국의 신화 일본을 앞선다'
KBS제1라디오 송병락씨를 초청하여 정기총회의 사전행사로 열리는 학술 강연회. 이제는 학술도 총학생회가 책임집니다.

언 제 : 4월10일(월)오후4시
어디서 : 소강당(대학원내)

해/방/후/50/년/역/사/속/의/우/리/교/육 3

세계화·자율성 논리... 교육 식민화 가속

개방 앞둔 교육개혁, 민족보다 미국 이익 더 중시

붙이는 순서

해방후 50년 역사의 우리 교육

1. 교육사를 통해 본 50년사
(①해방 전후-5-16)
2. 교육사를 통해 본 50년사②
(5.16-80년대)
3. 전 교육의 미국 종속성과 수
입개방에 따르는 문제점
4. 올바른 민족교육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과제

전 동 환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실장〉

미국에 예속된 한국 교육

우리나라에서 교육은 자부적인 인간, 민족적인 인재를 육성하는데 이바지하지 못한 채 예속과 공중에 찢은 식민지 노예를 육성하는 도구로 전락해 왔다. 그것은 미국이 우리나라 교육을 식민지 교육체제로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의 교육체제가 철저한 미국식 교육체제를 답습하고 있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것이다.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이라는 6-3-3-4 학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 고등교육 체계 형성의 기초로 되고 있는 종합대학·단과대학의 이중체제도 미국의 고등교육 체계를 본따 것이다. 또한 한 학교에 인문계와 실업계를 동시에 설치한 종합고등학교제도 역시 미국식 중등교육의 전형인 종합고급중등학교(comprehensive public high school)를 모방한 것이다. 전문대학제도도 미국의 전문학교 제도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일제시대 때부터 존재했던 식민지 교육체제가 철폐되지 않고 새로운 형태로 변형된 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 역시 한국의 교육이 미국의 식민지 교육체제에 편입되었음을 말해 준다. 일제시대 때 민족교육 발전정책에 이용되었던 사립학교법이 박정희 정권 때 사립학교법으로 변경된 뒤 오늘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대학선정기준법 및 전문대학선정기준법도 미군정기 때 발표한 '무허가 학교 폐쇄령'의 기초



해방 50년 동안 우리 교육은 미국의 식민지 교육체제로 만들어져 왔으며, 역대정권은 이에 맞는 교육정책들을 추종해 왔다. 현 김영삼정부는 교육시장 개방을 앞두고 학제개편, 고교리준화 해체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개혁안을 마련, 오는 5월경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관련 정책들도 반민족·반민주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있다.

또한 89년 현재 한국에 온 외국인 교수 4백50명 중 미국인은 50.7%인 2백28명이었으며, 외국인 교수로 초빙된 재미교도 65명까지 합치면 무려 65.1%나 되었다. 그 뿐 아니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89년 현재 4만1천6백96명의 해외유학생 중 52.5%인 2만1천9백6명이 미국 유학생으로 나타났다.

‘세계화’로 포장된 현 정부의 대미예속적 교육정책

더욱 심각한 문제는 김영삼정부의 교육정책이 한국 교육의 대미예속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는 데 있다. 지금까지 잘못 온 것은 앞으로 고쳐나간다면 된다.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 특히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라는 점에서 정부정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정부가 위중한 현안 교육개혁을 주창하면서 ‘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기대가 컸다. 그러나 개혁안이 하나씩 발표되면서 기대는 실망으로, 다시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후원과 구기회결속의 지지를 단행한 김영삼정부의 ‘대생자한계’가 교육개혁안에서도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김영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핵심 중 하나는 ‘교육의 세계화’다. ‘국민학교 조기영어교육 실시’를 비롯해 수능시험에 영어표가 점수를 더 배정할 것, 각 대학마다 영어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 ‘자비

유학자 무시법 유학제도 실시’ 등은 ‘교육 세계화’의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올해 학원법문을 개정할 때 이 어 대부분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등 교육분야 개방방향을 앞당기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하지만 현 정부의 ‘세계화 정책’은 하를 뚫은 빈수레에 불과하다. 더 정작 막대한 대미예속적인 본질을 감추기 위한 것일 뿐이다. 전국민적 영어교육 강화가 교육의 세계화일 수 없음을 상식적으로도 다 아는 사실이고 또한 자비유학자 무시법 유학제도는 도피유학을 합법화시켜 준 꼴이 되었다.

그에서 강남지역 중·고등학교에 사는 부유층 자녀 중 성적이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학생들의 상당수가 해외로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오늘날 세계는 ‘자국의 실력추구’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런데도 김영삼정부는 우리의 교육과 교육정책에 대한 보호는커녕 도리어 양자주의 미국에 문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김영삼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의 핵심 중 다른 하나는 ‘자율성 확대’를 통해 교육분야에서 무한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수월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꾀하는 명분이며 추진되고 있다. 학원사건으로 자율화, 고교평준화, 학제 개편, 교육개혁, 대학 정원·학사 자율화 등 그 대표적 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역시 교육 본질을 이롭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학원사건으로 자율화, 고교평준화, 학제 개편, 교육개혁, 대학 정원·학사 자율화 등 그 대표적 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역시 교육 본질을 이롭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 밖에 현 정부가 내놓고 있는 여러 교육개혁안 중 미국식 제도를 본뜬 것이 적지 않다. ‘대학평화법’이 인정제, ‘강의평가제’ 및 ‘교수임용제’가 그런 경우다. 또한 연구중심의 대학과 기능 및 교양중심의 대학으로 대학을 차별화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최근 사법개혁 운운하면서 사법부를 ‘로스쿨 제도’ 역시 정부 스스로 ‘미국식 모델’에 기초화하겠다고 공언한 제도이다.

근본적 변화 필요한 현 교육 현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 정부가 겉으로 보이는 ‘세계화’요, ‘교육개혁’이지만 본질은 식민지 교육체제를 더욱 전방화하려는 것에 다름없다. 따라서 교육정책은 근본부터 다시 짜여야 할 것이다.

우선부터 ‘세계화’가 아닌 ‘민족주의’와 ‘민족통일’을 지향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천민사상들로 구성된 교육계 인맥을 민족적인 인사들로 교체하고 미국식 제도를 본뜬 우리의 교육체제를 민족적인 제도로 개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교육은 머지않은 장래에 더욱 더 참한 꼴로 일그러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교육을 살린 대안으로 역시 가장 남을 것인, 아니면 교육을 망친 자로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인지 그 선택은 김영삼대통령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학원사건으로 자율화, 고교평준화, 학제 개편, 교육개혁, 대학 정원·학사 자율화 등 그 대표적 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역시 교육 본질을 이롭게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올바른 민족교육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③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송형호 교사(보교 영어과 79)를 만나

백년을 바라보는 사립이라고 불리는 교육의 주체는 교사와 학생이다. 그 중에서 교육의 능동적 당사자인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은 매우 크다. 해방 이후 교육운동의 역사 속에서 교사들의 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들은 부단히 이뤄져 왔다. 해방 직후 각급 학교교사들은 임시헌법을 하고 민족교육을 세우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후 들어선 미군정은 교사와 학생들의 격렬한 반대에 불응하고 ‘무허가학교폐쇄령’과 ‘국민학교선정법’ 등을 집행하며 민족교육을 향한 노력들을 좌절시켰다. 또, 4·19 당시에도 교원노조가 설립되다 군사 독재정권에 의해 1천 5백여명의 교사가 주축 해직되면서 해체됐다. 그러나 교사들은 이러한 좌절에도 굴하지 않고 이후 ‘YMCA중등교육자협의회’와 89년 ‘민주교육실현협의회’ (민교협)를 그리고 89년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의 전신인 ‘전국교사노동회의’ (전교협)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89년 5월 전교조가 설립되기까지는 이처럼 오랜 교사들의 교육민주주의 운동이 있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시험에만 매달리는 학생들과 괴로워하는 수업과 산업에 시달려 연구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교사들을 보며 교육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89년 전교조가 기업체 활동하고 있는 본교 영어과 79학번 출신인 송형호 선생님의 말이다. 처음 전교조가 생겼을 당시 사람들에게서 “교직원이 노동조합”이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선생님은 “교육은 사회산업의 일종이냐” 생각하셨다. 전통적인 ‘군사부일제’라는 말과 일제시대 학생을 통제하기 위해 칼을 차고 다녔고 교사가 잘못된 권위를 만들었고, 하지만 진정한 권위는 교사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냐 생각하셨다”라고 말했다.

공안정국의 89년에 교사들은 정치적 민주화를 선언하고 좀 더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단체를 조직하고자 했다. 그러나 정부는 언론을 통해 전교조를 ‘적위 의식’과 교사들을 ‘비도덕적’인 단체를 기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잘못된 교과서 내용을 비판해 오던 ‘교과 모델’은 좌절교육의 온상이라는 명분으로 모멸에 참가했던 교

탄압 속에

숨쉬어 온

교사들의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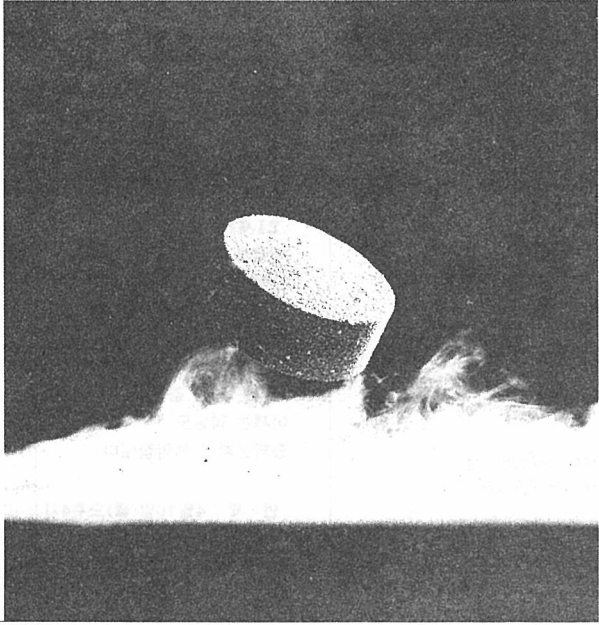
사들이 모두 해직되었다. 정부의 탄압으로 민교협이 운영해오던 공동학생들의 토론모임인 민주교실도 해체되고 급기야 남태원(당시 서울교대 4군과 이영현(당시 부산교대 4군과 연달아 분신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어 정부는 교직원의 노조 결성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노동법 개정의 노력을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시켰고 유대 없는 숫자의 교사들을 해직·구속했다. 이 같은 전교조에 대한 강력한 탄압이 실시될 당시 송 선생님은 역시 해직교사가 되었다.

지난 해 3월 현재의 송선생님에 복직되기까지 ‘영어교사모임’에서 자료집을 만들어 올린 교사의 상태에 대해 고민했다고 하는 송 선생님은 “해직기간 동안 교사는 지식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말한다. “공안정국에서 출발한 탓에 지나치게 학내에 바탕이요. 오히려 유망세에 서 벗어난 지금이 전교조가 재지원을 찾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이제까지의 전교조 활동이 전교조에 재지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 또, “교육개혁은 교실에서부터 이뤄지는 것입니다. 자본의 원리가 살린 일사단행 개혁은 눈속임에 불과하고 결국은 교육의 질을 더 떨어뜨릴 것밖에요”라며 복직된 이후에도 갈 길이 멀다고 얘기한다.

다시 교단에 선 송선생님의 별명은 ‘천사님’이라고 한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을 정수로 억압하지 않으려는 송 선생님의 노력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이다. “교육은 종합예술입니다. 복제의 스크린 앞에서 무한히 재생되는 상에 호신기간 동안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요. 시청률을 1백 퍼센트 만드는 것이 교사의 의무인 셈입니다.”

그는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수업에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고교과와 시각자료에 관한 책도 찾아보았다고 한다. “학생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당연한 노력”이라고 말하는 송선생님의 말에서 ‘민족·민주·인간·교육’이 실현된 날이 멀지 않음을 보게된다. (박태원 기자)

■ 초전도 현상



“공중에 떠서 생활한다?”

우주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피기열치는 더욱 아닙니다. 초전도체의 원리는 공중에 떠 있는 자석의 원리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초전도 기술은 이제까지 첨단 정보화사회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비, 미래 전력 유통기술의 중요한 연구과제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초전도 미래도시는 어떻게 다가올까? 리니어 모터카가 도심길 달리고, 해안에는 초전도 선박이 물결을 일으키며, 사무실에서는 조셉슨 소자에 의한 초고속 컴퓨터를 사용하고, 병원에서는 초전도 자석에 의한 MRI 촬영기가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국전력은 1961년 기술연구원을 설립하여 무공해 대체에너지 연구개발을 물론, 초전도 발전기와 케이블, 변압기 등 미래의 전력유통 시스템인 초전도 기술개발에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05년 실용화를 목표로 획기적인 초전도 에너지저장장치 SMES(Superconducting Magnetic Energy Storage)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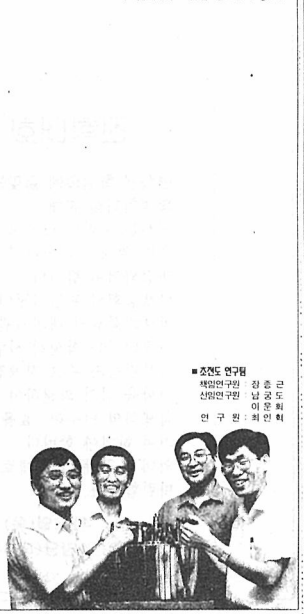
새로운 에너지, 완벽한 에너지는 없을지? 최첨단 초전도 연구팀은 21세기 뉴 에너지 창조자로서의 급지를 가지고, 보다 깨끗하고 품질 좋은 에너지 연구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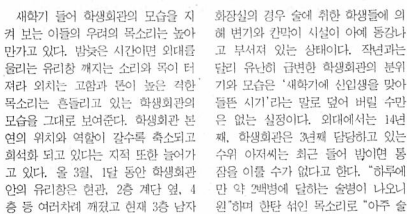


SMES 시험편

21세기 에너지 - 한국전력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NEW ENERGY



내용의 진지함이 상실된 출판, 학생회관



화장실의 경우 술에 취한 학생들에 의해 변기와 칸막이 시상이 아예 통간고고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잔파는 달리 유난히 급한 학생회관의 분위기과 모습은 '새하얀 신입생을 맞아들든 시기'라는 말로 따로 벌일 수아는 없는 실정이다. 외대에서는 14년새, 학생회관은 3년째 담당하고 있는 수이 아저씨는 최근 들어 많이 몸잡을 안 띠어 술값이 없다고 한다. '하루에 약 2백원에 달하는 술금이 나오니 원'하며 한탄 섞인 목소리로 '아주 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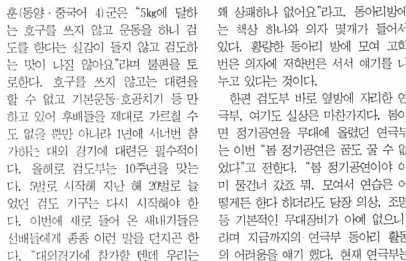
만만 해. 또 뭐야? 꼬집어 얘기해!
 다. 왜 안에서 다는 누구보다도 학회
 회원에 보면 상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저 개자도 학회회장이 다들 생강은 저
 개자도 부부지니.” “월요일 밤의 일로
 일 개지 일없이 내내 다들 생강은 저
 개자도 금요일은 그 걸로써 달랑하고 있
 다네. 국숫도 내가 인사할까? 그
 학생이도 토요일 날 높은 구토들은 끊
 이지 않네.” “과방에 또 학교가 어
 떴고 과방에 토요일 저녁에 도란도
 난 나누며 잡담을 나누네. 그렇고그
 과방을 잘 지켜주고 주무치고 있어. 잘
 꾸며져있고 있다.” “그저 그거 지
 학생이한테는 문제가 지극한. 순결이
 학회회장은 발모개 학회회관 글자
 들던 수의 이저가 내가 속한 학회
 개 주먹질할 때는 사제까지 하고
 학회회관과 제정하고 있는 과방과 통
 여한을 사네. 안에서 학회장은 밤
 이면 술을 사들고 있는 학생과 남
 자들이 있다. 뒷머리가 눈을 하러다
 과방에서 하는 것은 공중에서 보고
 있다. 그와 그 학회가 공판과 같이
 지고 내성을 하고자 진열하여 한다.
 과 회생 그 개자가 소리고 한
 학생 간의 유머감과 친밀감이 높아지
 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 그 공판은
 순·제개 모두가 모두로 토론을 할

기 진행에 수반하여 대대적으로 진군해 온 게 논의할 만한 점이기에 위헌 진흥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학살회관과 의모소와 학살터, 효문은 한 대안회의 실질적인 활동과 대안회의 모습에 달한다. 학살에서 이적이 자치단체로 넘어가는 그점을 중요하고 크는 사실이다. 김진진 총학생회장은 문화부장을 지낸 “지금의 학살회관 모습은 전 해대인의 정서와 의식을 보여준다”라며 “학살회의 활동이 과방안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을 안고 있다”고 말한다. 과방과 과동방이 많이 모여 있는 학살회관은 총학생회가 건물 몇 부단일 때와 달리 지금은 공간적 지배에 있어서 학살회의 실질적인 공간으로 지점을 장악하기 한다. 과방과 과동방만이 학살을 한다며 슬퍼기 위해서는 이 공간의 주인인 학살회의 인식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지금처럼 단위를 돌리다 보니이것이 화살을 던져줄수록 부수는 과방은 본래의 학살회의인식이 사라지는 자적이다. 한 살방이 넘버컷과 팔공과 과동방을 잡는 것은 학살회회의 과방의 내성적인 장소가 과방이다. 눈앞이 사라져 버려지는 과의 활동 토대를 오로지 학살회를 붙이는 것은 시간 폭력이다. 오직 화살을 쏠법을 들고 찾아 오는 슬픈연애는 (오마이뉴스)

〈오미나 기자〉

볼이 훑고 간 맨땅에 헤딩하는 그들의 봄맞이

지난 9년 11월 24일 새벽 4시, 서 울캠퍼스 학생회관 3층에 불이 났다. 당시 많은 피해를 입었던 김도보·연 구부자들은 넋놓고 새록새록 시작하기 위한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3월 들어 신입부원을 새끼구로 맞이 위한 준비 로 김도보·연구부의 사회기는 시작됐 다. 오랜 전통과 역사를 통해 축적된 은 연극부의 깊은 조영과 의상, 분장 세트를 비롯한 각종 생재, 산배들로부터 내려오던 각종 김도보의 달 보, 죽도, 호수 등의 각종 대의 시험에서 보 면, 신재들 그들의 손재가 물론 들어간



경의가 끝나는 오후 5시만 되면 어김없이 도복과 죽도, 호구를 쓰고 도현극장에서 연습을 해 왔던 김도복은 요즘 들어 인생, 일만엔 부터 노친 국장에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어디지 하세 보여진다. 하교당국의 회배보상(회배 회배) 13만1천 원의 산금을 무작정 가져다 줄 수만 없는 김도복 회원들은 자체적으로 일단 기보자의 연수에 필요한 도복(2만원 정도)과 죽도(1만 3천원 정도)를 마련했다. 정작 김도복의 연수에 필요한 호구(약 33만원)는 없지만 만만치 않아 개별적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 김도복 부원 조경

존(동양·중국어 41문)은 "5kg에 달하는 호주를 쓰지 않고 운송을 하니 짐도 많지는 않잖아"라며 짐도 많고 짐도 적은 맛이 나질 않아요"라며 불편을 토로한다. 호주를 쓰지 않고는 대원을 할 수 없고 기발문을 쓰고 싶어서 못 하고 있어 후배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년에 세나한 번 거는다는 대의에 편을 편자적이다. 올해로 검토부는 10주년을 맞는다. 5월로 시작해 지난 20일로 마무리했던 검토부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번엔 새로 들어 온 새끼기들을 신배들에게 좋은 이런 말을 던지고 있다. "대외경제에 참가할 때에 우리

에 상쾌하나 없어요"라고 동의하면서
는 책상 한쪽의 의자 밑가에 걸쳐서
있다. 화려한 종이방에 모여 고서
번은 의자에 저하번은 서서 얘기를 나
누고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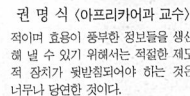
한편 검토부 바로 옆방에 자리한 연
극부, 여기도 실상은 마찬가지다. 봄여
면 정경공원을 무대에 옮겼던 연극부
는 이번 '봄 정경공연'을 끝으로 휴
었다"고 전한다. '봄 정경공연'이 아
미 물론한 것조차 모르. 모아서 연습은
떨어져 한다 하더라도 단장, 조연, 조연
등 기본적인 무대장비가 아예 없으니
라며 지금까지의 연극부 종이인 활용
의 어려움을 얘기했다. 현재 연극부

인민화위원과 위조삼 공연을 위한 돈
비에 의존했다. 물론 어떤 공연을 무사
히 진행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고
한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돈으로 환
산할 수 있을지 아무 말할 수 없습다.”
예전부터 화교에서 지원을 받아 온 작
자도 없었으니, 이에 개를 붙여 잘 조
제해보상을 해두더라도 언제 해 줄지
의문이 고 일어나 성가시게만 잔치 속
하 “그럼요”라는 연극에서 만난 한
화원은 지금까지 불꽃 발을 놓아 왔
다. 당장 공연 할 장소가 마땅치 않
아 애를 먹고 있는 연극부의 어려움은 외
부의 공진보상과 대학의 대하정환
건반을 치지하고 있는 동아리 학생과
대하문화에 대한 고도의 무관심
이 비단이나 거리가 더

지난 겨울 발생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지금도 줄어들지 않자 재해에 가려지는 고층은 돌아서서 이웃 사립한 대학이 산천을 함께 이뤄지자 이후 나타난 대역으로 현상이다. 연극부와 검도부는 한결같이 "이처럼 부러wie에 기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전 부처는 "그래왔고 익숙해져 있다"는 그들의 한탄은 외대 안에 갇혀 가는 학교 담장과 화형건의 불신을 그대로 비추고 있다. **《오마니 기자》**

〈오미나 기자〉

명수당



최근 중앙교과과정 심의위원회에서는 용인캠퍼스 어른계열학과의 교과과정에서 16학점의 지역학 과목을 필수적으로 1996년 1학기 부터 개설하기로 확정했다고 한다. 그리고 뒤이어 개별학과에 신설될 지역학 과목명을 사정이라는 애매한 명칭을 피하고, 정치 혹은 경제라는 말을 쓰도록 하였다.

그리고 오랜 기간을 두고 바깥은 온
 지와 안의 것이 겹겹과 함께 그
 다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럼에도 이
 것 다시와도 관련하여 특별한
 것이 있다고 진솔히 넘겨야 할
 것이 있다고 봐야 때문이다. 우선
 오늘날 사회 제도와 무한 경쟁
 사회는 지금의 상황을 지배하
 는 세 가지 요소의 안 및 첫 번째
 것, 지역 사회를 연구하는데 반해
 는 시점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 실패 방안에 대해서는 지역
 분할과 계급한 현실이다. 지역
 안 및 다른 모든 지역에 관한
 해답 연구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응용분야
 할 수 없다. 많은 응용분야의
 것 그 효용성을 바탕으로 시도를
 하여 이로부터 연구가 있다. 그
 다 그리고 연구가 급하다
 진정 사회적 수요를 지닌 것은

〈오미나 기자〉

지역학 과목, 사회과학계열에
설치가 더 효율적

포한다. 지리적 개념을 전제로 한 실
적용 용어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다루는 일은 세상이 바뀌고 더더욱
복잡해진다 해도 아니 그러면 그럴수
있고 더더욱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것을
연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적용범위가
무제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접근
하는 각도에 따라 학문의 분야는 다
라질 뿐이다. 언어와, 사회학, 역사학
과, 문과 인류학 그러나 이들은 모두
인간의 언어적, 역사적, 사회적, 문
화적, 종교적, 철학적 현상을 본

권명식 <아프리카어과 교수>
적이며 효용이 풍부한 정보들을 생산
해 낼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절한 제도
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
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지역화 연구를 효율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관련 교과목과 연구의 국외 위주로 설치되어서는 곤란하다. 기존의 일반 이론에 바탕을 두어 설립된 사회과학 분야, 예컨대 정치학, 경제학, 법학, 경영학 등의 학제에서 이론 분야 및 연구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말하자면 지역과 교과목은 이분해야만 한다. 또 사회과학에 설치하여도 효율적이라는 말이다. 그런데 이들 과목은 굳이 이론적 학부학과에 개설하지 않고 결정할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이미 학부비 학생 수 정원을 감안한

그런데 유익한 것이 꼭 지식자식만을 얻고, 그 근본은 인연을 얻는다는 것이다. 또 오늘날 지식의 개념은 인간 영역이라는 기준을 제하고는 별 효용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이성적·합리적 지식과 특정한 계층의 자연연구가 가장 인연적인 정보·기술이 되는 것이다. 이제 특정한 정보, 문화, 세 계화라는 과정을 통하여 점차 단일화, 통일화되고 가는 것이다. 인간이 있다면 어디나 이러한경로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해간다. 오래 지체할수록 오래 기다리는 것은 현행의 수준으로 유지한다. 보다, 왜냐하면 인간이 다른 모든 연구구분으로 통치될 수 있다. 비록, 다른 유물적 속성을 가진 생물과 본연에서 다른 유물적 속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정밀한 인공적인 현행의 지각적·심신적

생활실험

라면에 단무지 두 조각의 비에

라면을 먹는데
김치가 없다면 말
아니 됩니까? 이런
반전없이 생뭉침을 먹는것과 같다구요!
임정실 (간). 재계계측 21군의 허술
한 자리에 대한 한탄이다. 용인원과
스 승차장 분석코너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인근 김치와 단무지 셀프로서
가 없어졌다. 그나마 부실했던 메뉴
에서 라면을 먹는 사람이라면 마음대
로 먹을 수 있는 김치와 단무지에 그
대로 만족한다.

이제 리먼에는 단무지 몇조각 만
이 동동 떠 있을 뿐이다. 그리 싸지도
않은 분식을 먹는 학생들의 불만의 소
리가 높다. 물론 이 문제는 승차장 분
식코너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존에 있
던 학생회관 식당에도 이 서비스가 한
개 없어졌다. "학생들이 남기는 음식
이 너무 많았습니다. 요즘 환경문제도

단무지 두 조각

있고 학교에서는 쓰레기를 그냥 땅에 버립니다. 음식 쓰레기가 많으면 돼집안이라고 조예경씨(생활협동조합 직인 영양사)는 셀프서비스를 얻기 위해 버렸다. 작년에 셀프서비스 실시할 때 학생들이 버리는 쓰레기 돈으로 한산하면 하루에 4만3천원도 족다. 현재해와화과 식당은 2천500여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다.

제도의 안착은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먹을 만큼의 적당한 양만 가져 음식을 남기지 않고 이용할 때만 가능하다.

학생들의 편의를 생각하고 더 나은 질 좋은 음식을 제공해 주어야 생활협동조합은 기본적인 반찬에도 세심한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

이다. 반찬
의 비애
너무 적어서
먹으려고 해도
오르기가 귀찮고 먹어도 그만
게 되는 것이 일반직인 학생들의
실이다. 학교에 있는 식당을 이용
하기가 그리 쉽지 않은 입장에서 생
은 최대한 학생들이 일상에서 운영
아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지나
무지 정도가 아니라 뽕나물 등 더
는 기본 부식을 셀러브리티들 제공
수 있는 부분도 검토되어야 한다.

익차원의 사업이 아닌 7천 왕산 학
들의 건강을 생협에서 책임진다는
각으로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식당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리면에
무지 2조각의 비애를 느껴며 울며
자 먹기로 식사를 한다는 것도 다
한번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유경철기자)

<유경철기자>

4494

■ 인터뷰 — 제 3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의장 정태홍(고려대 총학생회장)군

“한총련의 끊임없는 혁신위해 애정어린 비판활동은 중요하다”



약력
1990 광주 석산고 졸업
91 고려대학교 법학과 입학
92 고대 법학과 91학번
학생회장
93 법대 학원자주화
추진위원장
94 법대 학생회장 역임
고대 조국통일위원회
위원장
95 경선동체 제3기
한총련 의장으로 선출

—제3기 한총련 의장으로 당선된 조상은
“일단은 기쁘다. 95년도 요구되어지는 여러 과제들을 청년학생들이 앞장서서 풀어나갈 것이다. 욕심이 있다면 한국 학생 운동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한총련 3기가 되는 것이다. 백만 화와 함께 거리의 자긍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한총련 활동에 대한 평가는

“한총련 1기는 행정권의 성격과 변화되는 시대에 대한 투쟁방향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고, 2기에는 정권을 시대대국, 분민독재, 남북대결 정권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구체적으로는 수일개방지지 투쟁을 통해 한총련식 운동전형을 정출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경제한 한총련출발 선언, 조문노조 등은 광안단립의 반발을 주기도 했다. 또한 이로 인해 대중성 확보에 미흡함 정도 인정한다.”

—지난해 국제정세력을 앞세운 정부의 노동자탄압에 비해 한총련의 대응은 LK투쟁에 매몰되어 미흡했다는 평가도 만만치 않은데
“먼저 우리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민자당이 LK투쟁을 과감히 연기하고 노동자탄압에 주력할 때 총체적 정세인식에 기초한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은 한총련의 오류였다.”

—그렇다면 올해 민주노총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민중연대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은
“일단투쟁을 통해 민주노총건설에 노력하는 것과 사회개혁에 대한 노력을 축으로 노동연대를 이루겠다. 한총련이 노동계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 상호간의 조직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민주노총후원을 기해, 준비할 것이다.”

—한총련이 북한의 사주를 받는 집단이라고 또한 한총련건부는 주사파가 대부분이라는데

“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 대한 상투적인 매도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못 느꼈다. 구태의연한 냉전적식에 기초한 무지의 소치일 것이다. 한총련은 민주적 투표를 통해 수립된 총학생회가 모여 건설한 자주적 대중조직이다. 절대 하나의 특정사상이 한총련의 이념이 될 수 없다.”

—대북방에 대해 듣고 싶다
“북한은 민족공동체의 중요한 부분이며 더럽혀 살아가야 할 통의 의미도 부여하고 있지 않다. 지금의 분단상황에서 통일을 위해 서로 연대해야 하며 그전제서로 이해하고 화해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여러 학생들도 한총련에 대해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북한사회를 맹목하거나

추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올해에는 범민족대회를 치루지 않는다면, 이는 기존의 통일운동에 대한 반성에서인가

“범민족대회가 한반도의 통일에 기여할 바는 두말 할 나위가 없다. 특히 남과 북 해외가 함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3차 연대의 통을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범민족대회는 광범위한 예측 통일대회를 대증적으로 묶는 데 일정 정도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통일민족대회는 3차 연대를 통한 전 민족적인 통일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남한의 통일대회를 광범위하게 조직화하는 대중적인 통일운동으로 진행할 것이다. 벌써부터 재언론이나 각종 종교단체, 시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자신에게 조문파동과 소위 주사와 냉전에 이이 율해되어 부산대, 경기대에서 조직사건이 터지고 있는데
“사실이다. 나는 직접 고려대 ‘김일성학생연맹’ 사건을 경험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내 의의 사랑하는 선배, 후배들이 잡혀가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사회를 위하여 이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는 맹세를

했다.
수많은 조직사건과 학생운동 탄압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이 부족했다. 이것은 2기 한총련이 상반기 때 대국민적 인식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한 채 하반기 탄압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95년도 또한 광안정국 휘몰아치고 있다. 우리는 통일 권력과 반 통일세력을 정확히 구분하고 이를 국민통보와 선전으로 해소해 나갈 것이다.”

—한총련 내 다양한 정치조직이 존재한다. 그 견해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서로 다른 부분은 토론하고 합의된 것은 작은 것이더라도 실천함으로써 서로간의 믿음을 쌓을 수 있는 것이 연대의 기본이고 함께 통일 단결을 지향하는 자세일 것이다. 95년의 과제는 실천적으로 이러한 과정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조직이든 정적되면 썩기 마련이고 끊임없이 혁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발전해나간다는 의미에서 한총련연대의 비판활동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미치마코로 학생들에게 하고픈 말은
“열심히 하겠다. 민족적 의지를 학생들의 힘과 결의로 담아내겠다. 여러 학생들도 한총련에 애정어린 비판을 부탁한다.” (사취부)

사회단신

제주항우회, 4·3 다시 알기

제 1회 4.3 문화학교가 제주사회문화협회의 재정제주항우회의 공동주관으로 지난 31(일)부터 1일(일)까지 진행되었다. 첫날 입학과 제주항우회 주최에 대한 강연을 시작으로 둘째날에는 제주항우회와 4·3, 환경개발 문제에 관한 강연이, 마지막 날에는 추모식과 제주인 한마당이 있었다.

한편 본교의 제주항우회 역시 3일(월), 도서관 전실에서 사진전 등 4·3를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제주항우회의 양경수(서양 불어 4)은 “재정항우회 4·3를 바로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밝혔다.

종교계, 통일 움직임 활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후회”는 본단 50년을 맞아 통일을 이루기 위한 사업으로 박병동주교가 사제의 편지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후회회측은 “본단을 지속시킨 사제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한다. 편지보내기 운동에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박병동주교는 편지를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 광장빌딩 5층 박병동주교가 사제의 편지보내기 담당자”로 보태면 된다.

또, 남한가 기독교로 대표되는 오는 8월 15일 관공제에서 해방 50년 기념 공동예배를 갖기로 했다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난 31일(일) 밝혔다.

한국통신노조 임무 전전대회 열려

“한국통신노조의 95 일·단투 승리를 위한 노동자 전전대회”가 지난 2일(토), 보리매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대회는 전국 각지의 노조원 4만 5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11시부터 풀꽃놀이 노래 등 사전행사로 시작되었다.

이날 노조는 33% 임금 가이도인 천배 산산인제, 직언명 해고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 지지 사제인 중심의 민영화와 통신분할 반대 산사재정경관 봉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회가 끝난 후 조문노조는 5시 반부터 여의도를 향해 출발 가두 행진을 하고 7시반 경 해산식을 가졌다. 원래 이 대회는 산사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연세대에서 허가 받지 않고 감행하고 진행했음 시 강경대응하라는 입장을 밝혀 지난 1일(금), 보리매공원으로 장소 변경, 진행되었다. 노조위원장 유덕삼씨는 “그간 노조가 만들어 놓은 임금 가이도인권을 무효화하고 지난 달에 인사대의원대회를 통해 확정된 임금인상안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한 자대”라고 이번 대회의 의미를 밝히고 “효율화를 내세운 정부의 민영화정책은 통신사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통신노조를 포함한 공공부문 노조는 오는 8월(월) 31(토)에 문화행사, ‘공공부문 노동자 총단결 총진군 함성제’를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가질 계획이다. 공공부문 노조는 이제까지 정부의 총액임금제 정책으로 다른 민간기업의 노동자에 비해 저임금을 받고 있었다. 특히 올해 정부의 시장개방을 대비한 공공부문의 민영화 추진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어서 공공부문 노조의 항쟁에 노동계가 주목하고 있다.

제야단체, 8·15행사 정부에 제안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등 5개의 제야단체(민주노총, 준비위원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민족예술인총연합회, 종교인협의회)가 8·15 민족공동행사(가칭)를 정부와 정당, 사회단체에 제안했다. 이 행사는 지난 2월 19일(일)에 있었던 민족통일민주주의전국연합 대의원대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다.

이 단체들은 지난 31일(일) 한국일보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행사에 남북정부 모두가 참여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지난 해까지 실시해 왔던 범민족대회와는 달리 좀더 대중적인 통일행사를 갖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며 “통일을 원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남북정부 당국도 이에 관해 현실화한 대화를 시작하라”고 말했다.

한편 이 단체들은 오는 4월 22일(일)에 연세대에서 ‘민족공동행사 추진본부’의 발족식을 갖고 민예회의 “가 우리 손을 잡자(가칭)”와 함께 축하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교육재정 확보 위한 결의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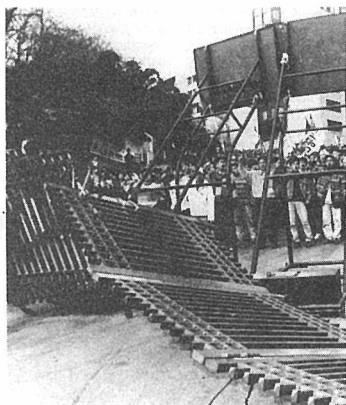
경찰, 교문봉쇄 등 강경대응

‘김영삼정부의 허구적인 교육개혁 반대와 국가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결의대회’가 지난 3월 30일(일) 단국대학교에서 열렸다.

원래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결의대회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인해 5시로 연기,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날 단국대 총학생회는 정중식 전 총장에 의해 주도로 결의대회이던 “대학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자금과 관련한 총장 개인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또, 한총련은 종교교 문해와 대학교육 개선을 포함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체계화되는 명문대학 교육이 무책임한 무관정경속으로 밀어붙여지는 언행”이라고 교육개혁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한총련은 교육개혁 이전에 한국교육의 회색이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GNP대비 5% 국가교육재정 확보”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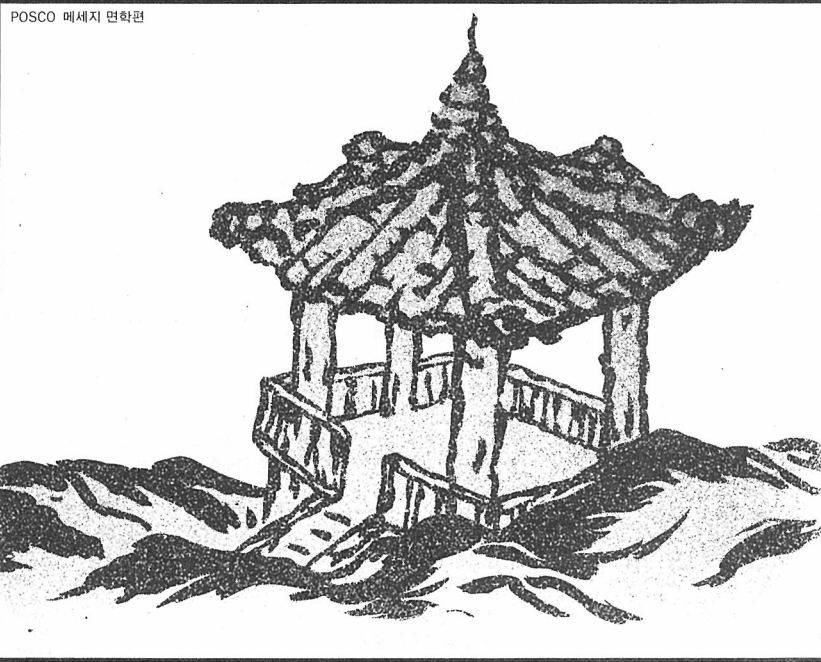
한편, 이날 집회에는 ‘경기대 자주대 활동가 조직사건’과 관련, 구국경비사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참가하였다. 비대위는 이번 사건을 “지자체를 앞둔 정부·여당의 눈치맞춤 조직사건”이라고 규정하고, 구속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전경들을 대치상태를 유지하던 이날 집회는 명동성당으로 장소를 옮겨 정리집회를 가진 후 자진산했다.



지난 3월30일(일) 단국대에서 열린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결의대회’에서 경찰의 원천봉쇄로 학생들이 밖으로 진출하지 못하자 이에 항의하고 있다. (박종선 기자)

POSCO 메세지 번역편



思想樓閣

교문을 나선 선배들이 남겨둔 텅빈 그 자리를
뜻밖으로 가득 채운 새내기들과의 만남.
계속 이어지는 항우회, 동문회, 환영회에 지쳐
늦게 들어간 정공 선택 수업시간...
강의에 열중하던 노교수님은 불현듯
철관에 큰 글씨로 대글자 ‘상(上)樓閣’을 쓴 뒤
창가로 몸을 옮긴 후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셨습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뒤 교수님은 철관의 글씨를
‘思想樓閣’으로 고쳐 쓴 다음 어둡게해진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대학생활은 내일을 위해 열려 있는 공간이며
곧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어떤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의 문제보다
기초를 다지는 것이 더 중요하합니다.
모래가 아닌,思想的 터전 위에 미래를 펼칠 때
완성된 삶은 오래도록 빛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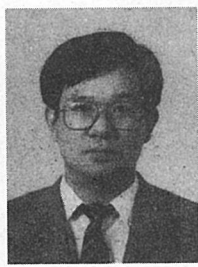
포항제철

최근 일부 대학들이 급속도로 학사개편안을 백지화 명목으로 언론에 내놓고 있다. 이는 크게는 국제사회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민족정신과 번영을 위한 구국(?)의 메타는 불분명이라는 '세계화' 구호의 바탕이 언론계의 선정성을 타고 대학에 불어닥친 것이라 볼 수 있고, 작게는 다가올 2003년에는 대학원생과 진학희망자가 수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3년 후의 우수대생에 인장받지 못하면 개방화 시대에 열악한 대학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 나온 자구책일 수도 있다.

이러한 개혁안 가운데 법학 전공자의 학사개편은 특히 로스쿨제도 도입을 통한 법학교육 개편에 관심이 쏠리 지 않을 수 없다. 모태이자 법과대학 폐지와 로스쿨 제도 도입을 발표하자 이에 기대었다는 뜻이 다른 사립대 학들도 경쟁적으로 그와 유사한 로스쿨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즉, 구체적인 계획조차도 없다가 먼저 도입을 발표하여 나중에 정부쪽 안이 로스쿨로 확정되면 그에 관한 대학원과정이나 학당 발간에는 마치 선점의 논리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하는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로스쿨 도입 발표는 정부가 그동안 추진 해온 사법개혁 중 일부가 비공식적으로 언론에 흘러나온 사실에 집중되기 시작한 것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이미 나타난 바와 같이 과다한 변호사 수요의 절감과 우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친숙하고 값싼 양질의 법률서비스가 공급되어야 한다는 점과 세계화를 지향하는 마당에 국제법제도를 해설하는 국제법률 관련 양상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당초 이러한 작업을 세계화추진위원회에 맡겼다. 그간 사법부나 법조인에게 맡겨놓았더니 집단이기주의와 이해관계의

대학이 변해야 개혁이 산다



이 훈 동

(세명대 교수, 의대강사, 법학과 76)

대립으로 지역적인 제도 개선책이 나뉘고 있으므로 더이상 반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대법원의 반발에 부딪히자 최근에는 세계화추진위와 대법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던 다관 법학교육개편이라는 세계화추진위가 말도 없고 한다. 이 해당자를 배제한 언론에 의한 일 어붙이기 식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정부의 태도는 오늘날 법과 졸업생에 비해 국회 소수의 사법시험 합격자를 내는 현행 고시제도와 고시준비를 위한 학원으로 전락한 법과대학 모습을 볼 때 지극히 수월로 인한 '유연무위 부원유위'라는 말이나 '송사'나 '나쁜 집안'이 많 한다면 말이 실감나는 요즘의 법조현황을 볼 때 음양 상강이 다 되고도 할 수 있다.

다만 이런 언론의 문제점은 일부

대학이 충분히 로스쿨에 대한 제도적 연도 없이 설익은 개혁안을 발표하고 다른 대학들도 시류에 영향을 받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진리의 전달인 대학이 지나치게 비교육적이고, 실용적인 상업주의에 빠져들게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해방이후 우리는 너무나 맹목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을 선진국으로부터 기계적으로 수입하고 추종해 왔다. 일부 분야에서는 모방과 복제나 사해방식에 돌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자기정신을 거치지 않은 모방을 말미암아 선진국의 제도적 부각을 우리의 변형현상을 나타내게 되었고, 교육분야 특히 대학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로스쿨제에서도 제도가 만들어진 미국 특유의 법

문화라든가 정책배경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지 아니하고는 도대체 우리는 다른데도 왜 못나 열매만 잘라 오는 우를 발하는 꼴이 되기 십상이다. 로스쿨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좀더 심도있게 할 것이면 만일 도입되더라도 미국에서조차 변형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변호사들의 상업주의 태도나 값싼 수입료 등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할 것이다. 로스쿨이 우리나라에서 노(N)스쿨이 되지 않기 위해서이다.

이외에도 어떠한 제도가 교육의 개선책으로 도입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교육과 사회에 뿌리를 내리려면 그 전제로서 대학자체의 도덕성과 진리 탐구정신의 회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일부 대학의 교수채용 과정과 관련된 비리 라든가 교수의 인품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련의 사건을 보면 중앙고전의 하나인 주위의 곤봉(神榜) '문언전(文言傳)'에 나오는 '서리가 옴에 오레 지 않아 얼음이 어는 이치와 같이 자식이 어미를 죽이는 연고는 허무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는 벌써 유래하고 있음을 미처 분별하지 못함을 있을 뿐이다. 대학이 변해야 모든 제도로 제대로 개혁의 지라에 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외국어 대학은 해방 후 개교하여 그동안 외국어를 통해 국가발전의 토대를 이루었고 이제 단속외의 국어가 아니라 교양 그대외 외국어를 연구하고 실천함에 그쳐 올바른 세계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각급의 상황은 개혁과 세계화에 대하여 타락화의 지나칠 정도의 홍보경쟁에 비해 현실적인 것이라는 인상이 강해져서 어디에서든 필자의 창작일과 책만 읽고 야무 정도 행하지 않은 학자는 '비로 내리지 않는 구름과 같다'는 글귀로 답하고자 한다.



크로아티아 학생들의 모습

들. 이러한 학생들의 자기 헌신성은 왕산 7년 간의 압력과 공동에 대한 무관심에 앞섰다는 의견의 표현일 것이다.

저출생인 당시의 사정은 '과습이사 과전'과 '황송한 사비' 등의 학원민주화론과 '기숙사 80년 중공, 도사관 9년 중공, 80년 동구'에 분리선정, 장학금 확보 등의 복지사업 개선사항의 합의로 일단락 된다. 또한 당시의 의회는 '장단기 발전계획 특별위원회', '교육 개선 특별위원회', '교동문제 대책위원회' 등의 특별기구를 구성해 학생들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교수, 학생 회의는 80년, 80년 계속된다.

복지사업개선에 치우친 88년 이후 88년 학원자주화운동은 80년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의의 정점과 구체적 이행에 중점을 두 진 행했다. 그러나 당시의 동구에서 분리, 중공과 문제, 지역화 도입을 장기적인 사안을 놓고 '단기복지사업'에만 매달렸다는 평가와 함께 '동공 자율화' 시대를 맞이한다.

왕산발전의 요구가 동공투쟁을 계기로 표출된 89년은 교수, 학생회의 (교학회의)를

생존 전략

○ '부모는 자식이 다 커서 출가 할때가 되더라도 곁에 두고 싶은 법.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숭고한 사랑이다. 반면 학교는 학생이 졸업할때가 되더라도 규정을 정하여 붙잡아 두는 것. 그런 바로 학교의 생존전략(?)인걸'

○ 정부의 길다르고 속다른 것도 세계화에 발맞추고 있다.

지난 달 외국인 연수생들의 과업이 시작됐는데 연수제도 개선을 점검하기 약속했다. 며칠 전에는 과다한 외국인 연수생들을 강제 연행했다.

개방도상국 지원하겠다고 돈만 뿌리지 말고 외치는 손님들에게 잘 해주는 게 아닐까.

○ '옛날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교수가 있었는데, 어느날 자신의 학교가 부정부패를 시킨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고발했다. '와' 잡았다. 짜짜짜(박수소리)

'연구도 많이 한다는 그 훌륭한 교수는 경영전문대의 김영이 교수님이야.'

3년후, 그 교수는 자택이탈로 교수제임 용에서 탈락했다.

'참고로 재임은 자격은 '연구는 별로 안 해도 좋은데, 불의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참을성이 있는 자에게만 부여함.



○ 입학식 바로 다음날 졸업하는 피이한 학교가 있어 크로아티아를 알아보니 입학식날 몸이 아프고 입장이 때문에 퇴학을 당한 것이란다.

이 뿐만이 아니라 머리가 갈다, 복장이 불량하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퇴학을 당한 학생들도 부지기수였고 글자 교습일이 양심선언을 하는 지점에까지 이르렀는데.

이 나라 교육이 어찌 될런지.

○ 휴신의 지장 어디로 사라졌나? 모의 월드컵으로 한창 들뜬 이문배에 승부의 냉정함에 승복할 수 없었던지 한 학생이 화장실 변기를 개수해 버려 원통해 했단데.

크로아티아, 역시 비통한 땅. 외대인이야? 우체 또 어떤일이?

○ 우리학교에 학부모를 위한 교육이 실시된다는 소문.

알았으니 새끼가 많이 입학식을 하지 않 다니 학부모 간담회를 연다고.

이유는 학부모에게 애교를 고취시키려고 그러는 거란다 - -

애교살이 필요한 학생일텐데, 학부모를 부르는 걸 보니 아이 입학식을 거경교육을 통해서 하라고 할 모양인데.

학부모 입학식(?)

외대 발전, 이제 다시 되자

③용인캠퍼스 학원자주화 투쟁사(80~94)

용인캠퍼스 15년, 마스터플랜의 허와 실

'꿈으로 그친 마스터플랜'

1990년 안산은 목표치 18만 6천 5백 94명인바다에 강습, 기숙사, 도서관, 조식사, 박물관을 비롯 50여종의 건물과 조형구조물.

1990년 최종단계에 이르기까지는 학부 3만 8백30명, 야간대학 7천 1백60명, 대학원 1만 9백명의 학생수. (총인 56,950명 80년 10월 17일자) 이는 1980년 6월 30일 현재 용인캠퍼스 15년 계획인 총 77개건에 달하는 용인캠퍼스 마스터플랜이다. 이렇듯 웅장한 포부를 안고 출발한 용인캠퍼스는 80년 7월 착공해 81년 9월부터 학생들을 수용을 받게 된다. 이에 당시 유인대(당시 교명) 학도교육단은 재학생의 의견을 모아 학교당국에 현안으로 떠오른 학내 문제에 대해 서면질의를 한다. 그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기숙사 82년 9월 내 착공요구
= 사내버스 유지가 최선의 해결책이다. 82년 1학기부터 상남-학교간 민영버스노선 정차 시작됐다.

-교동문제 해결 요구
= 교통편의 유치가 최선의 해결책이다. 82년 1학기부터 상남-학교간 민영버스노선 정차 시작됐다.

당시 학교측의 이러한 답변과는 달리 기숙사는 80년이 되어서야 학생들 입주가 가능해졌다. 또한 교통편제는 82년 9월 배차간격·시간표상의 문제도 학생들의 격렬한 반발이 일어난 후 90년 3월 교통편제 담당직원 집기 한 출근차 14대여 급차 한대도 그치지 않고 학내 소모품 일인씩 핵심요소로 작용했다.

교통편제와 기숙사 준공시기는 88년 준공

된 학내환경, 91년 준공된 중앙도서관과 함께 용인캠퍼스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인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다. 마스터플랜이 말하는 1995년 외대의 모습과, 1995년 현재 용인 캠퍼스의 실상이 갖는 차이는 외대인에게 많은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교육환경의 불만 표출

마스터플랜을 받고 자신이 담고 있는 모교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던 학생들은 82년 서울캠퍼스와 동일학제 요구, 83년 석당불매운동·서울캠퍼스와의 예산분리, 그리고 매해 교통난에 대해 불만을 표출했다.

1983년 5월 3백여명의 학생들은 대학생활의 기본조건조차 이르지 않은 현실문제에 근본적 해결책으로 '재단공개', '마스터플랜의 구체화'를 내세우며 수업거부와 정거농성에 돌입한다. 한달이 넘도록 계속된 학생들의 수업거부농성에 대한 학교당국의 대응은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 첫번째는 4시에 걸친 5학년계획안 확정, 8월의 정거농성을 주도한 학생회장직을 비롯한 8명의 임원진에 대한 정거농성농동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을 가한 것이다.

이러한 학교당국의 계획안 발표와 정거조치에 대해 학생들은 부실한 교육요구불수대로 규정하고 '부당정거 철회'와 '부실재단 퇴진'을 주장하며 농성장소를 서울캠퍼스로 옮겨 총학생회와 학생회 기동을 부수며 정거농성을 계속한다. 그러나 정거농성으로 농성학생 수 감소와 다가오는 방학으로 인해 학생들은 자진해산하게 된다. 이로인해 학생들에게

다가간 것은 9명의 학생에 대한 2차정거 뿐이었다. 후유증만 남기고 지나간 83년 1학기 학내분규사태는 농성-수업의 정거-농성-정거 등의 악순환만 되풀이 되며 마무리 된다.

한달이 넘게 계속된 농성으로 83년 직선제 총학생회는 사실상 와해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후 89년까지 단절된 왕산발전운동은 갈수록 침체되는 교동문제로 또다시 고개를 든다.

50여일에 걸친 투쟁

학생들의 목소리가 낮아질 때 왕산의 교육환경은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않았음을 86년 교동문제가 알려주고 있다. 돌아오는 학생에 비해 줄어드는 총학생 수 운동횟수는 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을 극명하게 나타낸다.

87년 9월 '구국학원 복지특별위원회'발족식에서 당시 부총학생회장 김경관은 "80년 이후 7년여 동안 쌓여온 왕산의 비민주적 학원문제는 다이상 우리들의 철학과 공동으로 묵시될 수 만큼 없다"라고 밝히며 43개조항에 걸친 학원민주화와 왕산복지사안을 요구하게 된다.

요구안에 대한 당시 학교측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학생들은 '여름총장 퇴진', '부실재단 퇴진'을 외치며 외대역사상 초유의 50여일간에 걸친 장기적인 정거농성에 돌입한다. 정거수업은 계속 기동자처럼 집주인 학내분규사태는 교수회의와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당시 학생들의 학원민주와 왕산발전에 대한 열의에 대해 (외대)보도 47호 87년 10월 17일자)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단식농성중 쓰러져 가는 학생들, 열서를 쓰기 위해 손을 댔다 출혈이 심해진 학생

비둘기협판

이문배

■모집합니다

교직원집위원회에서 36기 수습위원을 모집합니다.
대상 : 95학번 누구나
기간 : 4월7일(금)까지
(교직원집위원회)

■알립니다

-매스컴 특강이 있습니다.
주제 : "세계속의 한국문화"
강사 : 신인선 (국제광고협회 사무총장)
때 : 4월4일(화) 늦은 1시
곳 : 학내단풍 402호
(신방과 학생회)

·4월 적성검사를 실시합니다.
때 : 4월 7일(금) 늦은 2시
4월19일(수) 늦은 2시
곳 : 학생 생활 상담 연구소
(학생회관2층)

소요시간 : 1시간30분정도
(학생 생활 상담 연구소)

·동문회가 있습니다.

때 : 4월6일(목) 늦은 5시
곳 : 강동
(대원고 동문회)

·매스컴 특강이 있습니다.
주제 : "세계속의 한국문화"
강사 : 신인선 (국제광고협회 사무총장)
때 : 4월4일(화) 늦은 1시
곳 : 학내단풍 402호
(신방과 학생회)

·매스컴 특강이 있습니다.
주제 : "세계속의 한국문화"
강사 : 신인선 (국제광고협회 사무총장)
때 : 4월4일(화) 늦은 1시
곳 : 학내단풍 402호
(신방과 학생회)

곳 : 대학원 로비

(수험고 동문회)

·매 : 4월4일(화) 늦은 5시

곳 : 대학원 로비

(한영외고 동문회)

·총 모교지 있습니다.

·매 : 4월4일(화)부터 5일(수)까지

곳 : 경기도 새터 호반

회비 : 만원

(포아과 학생회)

·매 : 4월4일(화)부터 5일(수)까지

곳 : 수동 유스타운

회비 : 만오천원

(불어과 학생회)

·매 : 4월4일(화)부터 5일(수)까지

곳 : 김촌 민들레 민방

회비 : 2만원

(취문고 동문회)

·매 : 4월4일(화) 늦은 5시

곳 : 학내단풍 402호

(신방과 학생회)

·매 : 4월7일(금) 늦은 5시

·매 : 4월7일(금) 늦은 5시

(취문고 동문회)

·매 : 4월7일(금) 늦은 5시

(취문고 동문회)

·매 : 4월7일(금) 늦은 5시

(취문고 동문회)

·매 : 4월7일(금) 늦은 5시

(취문고 동문회)

·매 : 4월7일(금) 늦은 5시

(취문고 동문회)

·매 : 4월7일(금) 늦은 5시

(취문고 동문회)

다. 많이 주주세요.

때 : 4월6일(목)

곳 : Yes, Bash

(형정학과 학생회)

·축하합니다

·지난 3월 생일을 맞이한 94학번 김대원, 95학번 김병수의 생일을 축하하며 4월8일에 생일을 맞이하는 94학번 박일우에게 진심어린 축하를 보냅니다.

(불어과 학우 일동)

·4월4일(화)부터 5일(수)까지

곳 : 경기도 새터 호반

회비 : 만원

(포아과 학생회)

·매 : 4월4일(화)부터 5일(수)까지

곳 : 수동 유스타운

회비 : 만오천원

(불어과 학생회)

·매 : 4월4일(화)부터 5일(수)까지

곳 : 김촌 민들레 민방

회비 : 2만원

(취문고 동문회)

·매 : 4월4일(화) 늦은 5시

곳 : 학내단풍 402호

(신방과 학생회)

·매 : 4월7일(금) 늦은 5시

(취문고 동문회)

·매 : 4월7일(금) 늦은 5시

(취문고 동문회)

·매 : 4월7일(금) 늦은 5시

(취문고 동문회)

·매 : 4월7일(금) 늦은 5시

(취문고 동문회)

·매 : 4월7일(금) 늦은 5시

(취문고 동문회)

·매 : 4월7일(금) 늦은 5시

(취문고 동문회)

다. 많이 주주세요.

때 : 4월6일(목)

곳 : Yes, Bash

(형정학과 학생회)

·축하합니다

·지난 3월 생일을 맞이한 94학번 김대원, 95학번 김병수의 생일을 축하하며 4월8일에 생일을 맞이하는 94학번 박일우에게 진심어린 축하를 보냅니다.

(불어과 학우 일동)

·4월4일(화)부터 5일(수)까지

곳 : 경기도 새터 호반

회비 : 만원

(포아과 학생회)

·매 : 4월4일(화)부터 5일(수)까지

곳 : 수동 유스타운

회비 : 만오천원

(불어과 학생회)

·매 : 4월4일(화)부터 5일(수)까지

곳 : 김촌 민들레 민방

회비 : 2만원

(취문고 동문회)

·매 : 4월4일(화) 늦은 5시

곳 : 학내단풍 402호

(신방과 학생회)

·매 : 4월7일(금) 늦은 5시

(취문고 동문회)

·매 : 4월7일(금) 늦은 5시

(취문고 동문회)

·매 : 4월7일(금) 늦은 5시

(취문고 동문회)

·매 : 4월7일(금) 늦은 5시

(취문고 동문회)

·매 : 4월7일(금) 늦은 5시

(취문고 동문회)

·매 : 4월7일(금) 늦은 5시

(취문고 동문회)

다. 많이 주주세요.

때 : 4월6일(목)

곳 : Yes, Bash

(형정학과 학생회)

·축하합니다

·지난 3월 생일을 맞이한 94학번 김대원, 95학번 김병수의 생일을 축하하며 4월8일에 생일을 맞이하는 94학번 박일우에게 진심어린 축하를 보냅니다.

(불어과 학우 일동)

·4월4일(화)부터 5일(수)까지

곳 : 경기도 새터 호반

회비 : 만원

(포아과 학생회)

·매 : 4월4일(화)부터 5일(수)까지

곳 : 수동 유스타운

회비 : 만오천원

(불어과 학생회)

·매 : 4월4일(화)부터 5일(수)까지

곳 : 김촌 민들레 민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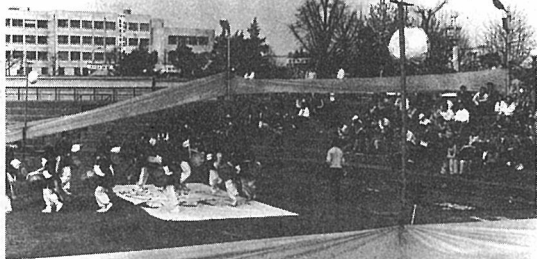
회비 : 2만원

(취문고 동문회)

·매 : 4월4일(화) 늦은 5시

곳 : 학내단풍 402호

동양어·인문대 정기총회 열려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 발맞출 터



동양어대

1학년 학생을 학원의 담당 한 주인으로 만드는 동양어대의 하나되는 날, 제29대 동양어대 정기총회와 및 해오름(사)이 지난 30일(목) 2층300여명의 참여속 에 노전극장에서 열렸다. 학생들 의 생활의 변화에 다양한 변화를 함께 모색하는 학생회로 설 것을 다짐하며 △부문제결론의 활성 화 △학생회 개선을 통한 동대 학술중로 조성 △반송방 건설을 통한 의견수렴과 대내외 학생회 건설 △전신상회를 통한 통일시

학생회 건설 △올바른 지역연대 와 대중투쟁의 활성화 △8·15민 족공동행사(가칭)를 대외적으로 일구어 조국통일 신기의 창출을 의 1학년 사립기조를 세웠다. 학 생회장 최영민(동양·터키어4) 군은 "홍보와 대 회장간의 연계 가 적어 많은 학생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동대인 모두를 모아내는 학생회로 설 것이다"라 고 밝혔으며, 이어 진행된 대동 미담과 뒷풀이에서 동대인이 하 나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문대는 3일(월) 소문동에서 해오름 및 정기총회를 개최 했다. 본행사에서 앞서 대 회장 육태희와 철학과 노래래·윤동태 의 공연, 세내기발·과발·동아 리발 정기자리가 진행됐다. 인문대 올해 사업 기조는 △과 학생회 체계 강화 △신간부학회 로 인한 체계적비 △대내외적인 통 일사업 등이다. 이와 관련, 인문 대 사무국장 최현호(철학 3)군은 "학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학생회가 되겠다"라고 결의를 밝 혔다.

□ '통일맞이 6현왕산인 모임'을 준비하는 서명아군을 만나

"통일은 결코 먼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단, 2세대입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분단 2세대로 남는다면 우리 후세는 계속 분 단세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분단세대를 끝내고 우리들이 통 일 1세대가 돼야 합니다"라며 담 담하리던 한씨가 서명(사하·노아 4)군은 말한다.

3월28일(월) 통일맞이 단대주 체 모임을 시작으로 닦은 물인 이 모임은 앞으로 발간인문대, 총회등 계속적인 활동을 준비하 고 있다. "민족적으로 유례가 해방 50주년 시기에 사회적인 도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통 일문제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 었습니다." 정부는 말한 해방 50주년에 대해 통일맞이 모임에 대한 관심은 전혀 찾아볼 수 가 없다. 그런 시기에 이 통일맞이

이 6현왕산인모임은 통일을 진 심으로 열망하는 학생들이 모여 왕산에서부터 그 작은 불씨를 놓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통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생각했음에 한 학생이 이북에 편 지를 보내지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담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도 안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 라서 지금은 통일강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것이 통일의 밑거름이 될것입니다" 민주국가 라고 하지만 통일에 대한 거의 모든 부분이 막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할수있는 일은 너무나 적다.

"각종 많이 했습니다. 작년의 박종철장 발인후 공안당국에서 통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매도하고, 그들의 통일을 왜곡 되게 만드는 분위기이기도요. 그러나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 라는것은 전혀 찾아볼 수 가 없다. 그런 시기에 이 통일맞이

다. "세계화, 국제화를 떠돌어 대지만 과연 한민족이 떨어져있 는 현실에서 무슨 세계화를 이 룬것인지 의심스러운 듯 말투를 놓였다. "지금 반공 이데올로기때문에 어려움이 많지만 통일을 반대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유혹되어 가는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통 일은 결코 먼길이 아닙니다"라 며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자신 있게 강조했다. "재정문제가 된 들지만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줄 것을 믿으니 든든 합니다." 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진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자신 이 더 부끄러워한다는 서군은 계속적으로 이 모임이 이어질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 다. 이제 통일맞이 6현 왕산인 모임은 시작되었다. 진정으로 통 일을 믿는 학생들이 모여 통일 1세대가 되라는 그들의 의지는 불꽃처럼 타올랐을 것이다. (유정환기자)

21C 의발위, 직능별 동문 간담회 오는 10일, 정부기관 재직 동문

21세기 외대발위위원회(위원장 안병만 총장)는 정부·언론·교육·금융·기업계의 동문 약 2천 명을 대상으로 총 5~6회의 직능별 동문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의 첫번째 사업으로 오는

10일(월)에는 정부기관 재직 동문간담회가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다. 또한 동문명단 전산 화자업이 6월중 완료될 전망이다.

학복위, 학보용 봉투 판매

가격, 1백 30원

우편부 개정으로 50원에 보냈 던 학보에 일반우편요금에 적용 된 2백 30원에 보내야 한다. 이에 학생복지위원회는 학생들 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4일(화)부터 학보용 봉투를 구내서 점이나 문방구를 통해 1백 30원에 판매한다.

요금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종은 다소 절리지만 정기간담회를 발송 계약 형태의 학보용 봉투를 제작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학보발송을 원하는 학생은 학 보용 봉투를 이용해 학복위에 마 련된 우편수집함에 넣으면 다음 월요일 까지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다.

축구부, 모의 월드컵 개최

단결을 도모하는 자리 마련

외대인의 열띤 호응속에 제 14 회 모의 월드컵이 지난 27일(월)부터 일주일 동안 외대축구부 주 회로 대운동장에서 열리고 있다. 29개 전 학과가 31일(금)까지 예선전을 벌여 8강 진출팀(경 제·무역·경영·일본어·노아·신방·법학·독일어과)이 확정됐 다.

무엇과하의 시합을 시작으로 6일(목) 존결승전, 7일(금) 결승전을 치르게 된다. 쌀쌀한 날씨에도 활기를 띤 경기로 지속되고 있는 모의월드컵이 "스포츠마케팅을 통 해 단결을 도모하고, 외대 전체 의 응집력을 키워낸 장으로 기대 된다"라고 축구부인 신세민(법·법학외국어)은 바람을 밝혔다.

동양어대, 방송국 건설

오는 5월 1일 개국

동양어대 학생회는 영상매체를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방송국을 개설한다. 오는 5월 1일(월) 개국 예정인 방 송국은 동대 9개학과를 연결하 고, 교내소식, 전공어과관련 정보, 교양영화 등을 내보낼 예정이며 오는 10일(월) 시범방송 된다.

방송국 건설 준비위원회장 이경 한(동양·아랍어4)군은 "기존의 틀로는 변화하는 학생들의 의견 을 담아내기 힘들며, 방송이란 매체를 통해 학생들과 다각적인 만남을 시도할 것이다"라며 방 송국 개설 의의를 밝혔다.

축구부, 20주년 기념행사

동문측 장학금 전달 예정

축구부가 맺어온 인연, 명 예·사망·투지의 외대축구부가 20주년 기념행사를 오는 9 일(월) 소강당과 대운동장에서 열 는다. 이삼근(영어과) 지도 교수, 서경대 축구부등 축구를 사랑하 는 사람들이 모여 대운동장에서 졸업생 대 재학과의 축구경 기, 가족제일동이 펼쳐지고, 소강당 에서는 기념행사와 대외의 시간 이 마련된다.

모의월드컵, 정기외서전등으 로 20년 역사를 엮어온 외대축 구부는 졸업생문둥이 장학금들 을 마련해 재학생 4명에게 장학 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축구부 주장 윤석 운(동양·아랍어4)군은 "20년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아끼 두며, 사랑해 온 우리 축구부는 20 주년을 맞아 외대 최고의 동아 리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할 것 이다"라며 행사 의의를 밝혔다.

1976년 축구부동위로 시작하



지난해 감전사고로 사망한 정수영(동학·인도어 3)양의 1주기 추모식이 아문관 로비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태호(동학·인도어 4)군은 "수영이의 죽음앞에서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하지 서슴치 않았 던 학교측에 분노를 느꼈다"라고 말했다. (사진부)

본교 교수, 신간서적 발간 활발



태국 현대정치와 이해

태국정치의 파문점인 삼당부터 제 2차세계대전 종결까지의 태국 의 대외정책을 주로 서술했고, 피 본의 정책이 태국민주주의에 끼친 영향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차상호(태국어과 교수), 본교출 판부, 7원권>

어제는 독서습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상한 책이다. <유대훈(서반어과 교수), 삼지 사, 1만 2천원>

역사교과언어학개론

영어를 중심으로 역사언어학과 비교언어학을 설명하고 있으며 특 정학제에 치우치지 않고 여러 학 과의 하성과 논쟁을 절충하여 객 관적으로 다뤄 언어와 문헌자원이 는 안목을 지닐수 있도록 도와 준다.

다른 대학에선

동덕여대 사회봉사활동 학점 제도 도입

동덕여대는 올해 1학기부터 사 회봉사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사회봉사활동 학점 인정제'를 도입해 교양필수 과정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일(토)부터 오는 6 일 14일(수)까지 10주간 48시간을 정해진 사회봉사 기관에서 봉사활동 하게하며, 평가된 성적은 봉사 실적상의 장이나 지도교수에 의해 결정된다. 선학수로 인원을 개 한하는 학생이 힘든 곳을 개 려하는 경향이 있어 선택기관이 부족한 구상된다. 일부에서는 사 회봉사가 단지 한 학기 수업의 일 회이 아닌 자기성찰의 기회로 바 뉘고, 학점으로 평가돼 본래

의 봉사정신마저 퇴색시킬 우려 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남대 학군단, 폭력 휘둘러

한남대학교 학군단(ROTC) 후 보생들이 신문의 기사를 파손 하고 재학생에게 폭행을 가해 군 사문명의 부합이라는 비난을 사 고 있다.

이런 시건의 발단은 이 대학 신문 29일(월)자 여론면에 실린 '학군단에서 행해지는 총성소 음'이라는 글이다. 이글은 도서 관이나 실험실조차 총성이라고 외치는 행동에 대해 비난하는 내 용을 담고 있었다. 29일(금)에 의회를 제기한 후보생 15명이 기자들에게 욕을 하고 배포된 신 문을 화상으로 갔다. 29일(수)에 정상욱(영문과 4)군이 기자들에

게 1면에 사과광고를 실으려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대가하고 있던 후보생들을 불러 자료실과 기자실, 압실등을 파괴하고 난로 를 뒤엎어 화재까지 발생시켰다. 현재 한남대 신문사는 다음 신문 제작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이 대학 장기학생총회때 ROTC의 총성구호를 소용이라고 비판한 장기학생총회(독문과)군은 집단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고 있다. 한남대 신문사의 총학생회측은 '언론의 자유를 행하는 예의장 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 고 △국방부장관의 공식사과와 △한남대 해체 △사관연관 공개사 과와 자진사퇴 △사관연관자 전 원 공개사과와 처벌 △사관연관 신 문사 기동 및 자료 완전복구와 배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만은 지킵시다

서울캠퍼스에서는 교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95년 3월 29일부터 학생순찰대인 「외대사랑순찰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날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캠퍼스내의 무질서와 외부인에 의한 폭력, 파괴행위를 예방하고 불미스러운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운영되는 「외대사랑순찰대」에 대하여 재학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아울러 아래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내에서의 음주, 고성방가하는 행위 금지
- ▼각종 폭력, 파괴행위 금지
- ▼아간에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 금지
- ▼교정에서 운전연습 및 불법주차 행위 금지
- ▼아간에 운동(농구장) 행위 금지
- ▼외부인의 아간 출입통제를 위한 학생증 제시를 요구 할 경우 협조

외 대 사 랑 순 찰 대

복수전공 이수신청

1995학년도 복수전공 이수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해당학생은 신청하기 바람

1. 복수전공: 부전공의 연장으로서 제2전공화하는 것으로 제1전공 이수 후 1~2년간 연장수업으로 제2전공을 취득 함.
2. 신청기간: 1995.4.6(목)~4.10(월) 10:00~16:00
3. 신청장소: 해당대학 교과과
4. 신청자격: 복수전공 희망학과를 부전공으로 이수하는 학생으로서 제1전공을 8학기에 이수할 수 있어야 하며, 제3학년 2학기까지 전체 성적평군이 2.5(C+)이상인 자
5. 제출서류: 복수전공 이수신청서(교과과 비치), 전학년 성적증명서 각1통
6. 복수전공 이수 허가자 발표: '95년 4월중 단과대학별 공고
7. 학위수여: 1995학년도 제1학기 복수전공 이수허가자 부터는 제1전공 학위를 제2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때 동시에 수여하리 함오았기 바람.
8. 중도포기자 학위수여: 복수전공 이수 허가자가 8학기 이상을 이수 하고 복수전공 과정 이수를 중도에 포기 또는 취소하고 자 할 경우 수업 일수 3/4인 이전에 복수전공 취소신청서를 소속 단과대학 교과과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자에게는 해당 학기말에 제1전공(부전공 인정) 학위를 수여함. ('95학년도 제1학기 복수전공 이수허가자 부터 적용)

대 학 장

대인관계연습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인간관계는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누구에게나 친구, 선배, 애인, 가족 사이에 갈등과 오해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갈등과 오해를 풀어주는 가운데 우리의 자아가 성숙해집니다.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외대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훈련기간: 4월 둘째주부터 매주 90분씩 8회

서울캠퍼스: 화요일 오후 3:00~4:30

용인캠퍼스: 월요일 오후 2:30~4:00

참가신청 및 모집 장소

각 캠퍼스 학생생활상담연구소

(학생회관 2층)

신청기간: 4월10일까지

학생 생활 상담 연구소

